

기업과 정부

© 2005 년 4 월 아셰르 인트레이터

진실된 성도들이 기업과 정부에 속하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확립하는 데에 중요한 연결점이 됩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정부입니다. 예수아께서 그 정부의 수장이 되십니다. 예수아께서는 이 땅의 모든 통치 체제 위에 있는, 궁극의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단 4:17, 25, 32). 이 세상의 모든 통치 조직은 하나님의 최고 주권을 대리하기 위해 주어진 권세입니다 (롬 13). 물론 실제로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이들이 많은 경우 하나님과 예수아께 반역하고 있지만요 (시 2).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영향력을 기업과 정부에 미칠 때, 우린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오도록” 돕는 것입니다 (마 6:10). 그 분의 왕국은 만유 위에 있기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정부를 각종의 직권에 위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권위적 위치에 임명할, 지혜와 공의, 분별력과 탁월함을 가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단 1, 사 11).

하나님의 정부는 다음의 영역에 위임이 돼 있습니다. 1) 가정, 2) 공동체 (교회), 3) 입법부 (사 33:22), 4) 사법부, 5) 군대 (롬 13:4), 6) 기업 (엡 6:5, 딤후 2:9)

우리가 이들 영역의 지도자들에게 복종할 때, 우린 하나님의 권위에 결국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 역도 성립합니다. 우리가 그 분야의 권위적 위치에 올라, 청렴하게 일하면 하나님의 권세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중 대부분이 가정과 공동체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권세를 잘 압니다. 그러나 더 “세속적”인 분야들도 그와 똑같이 하나님의 정부에 속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사도적이고 예언적인 관점은, 군대와 시장에서 하나님의 권세를 보는 것이지 “성직”에서만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의 권세를 찾도록 부르심 받았습시다 (창 1:28). 예수아의 정부는 이 세상의 모든 정부를 취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계 11:15, 사 9:6~8).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시키는 한 가지 방법은 이 세상 시스템 가운데 권위적 위치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가 정부와 기업 가운데 지도자가 될 때, 예수아의 정부는 이 땅에 한층 더 임합니다.

성도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으로 충분치 않습니다. 권위 있는 자리에서 성도답게 행해야 합니다. 청렴함으로 직위를 수행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심이 되는 성경적 개념은 공의입니다 (히브리어로 “쎄데크”).

정부 공직자들에게 방향을 제시함에, 토라는 “너희는 오직 정의만을 따라야 한다 (신 16:20)”고 말씀합니다. 저는 예수아께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마 6:33)”고 하실 때 이 말씀을 염두에 두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 위치들을 채울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통치 조직은 이미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그 자리에 들어갈 정의로운 사람입니다 (왕하 18:23, 눅 19). 많은 성도들이 예슈아의 왕국의 권세가 있다고 말하지만, 지도자의 자리를 맡을 준비도 안 됐고, 그럴 의지도 없으며 능력도 없습니다.

문제는, 권세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겁니다. 무책임한 사람에게 정부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작은 것에 책임감 있는 신실한 종이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걸 주실 겁니다 (눅 19, 마 25). 우리의 조잡한 영성이 선의는 있지만, 진정한 책임감이 없는 사람들이 되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것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작흐 와자라는 "아웃 오브 아프리카" (Regal, 2004)라는 책에서, 어떻게 "일터의 사도들"이 지역 교회와 세속 사회 가운데 다리 역할을 하는지 기록합니다. 그들은 경제와 교육, 정부 조직에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파하고, 부를 얻어 복음을 위한 재정을 댁니다. 작흐는 나이지리아 최대 통신사 중 하나인 에코넷 Econet의 최고 경영자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약 200 명의 믿는 유대인들이 군대에서 복무하고 있으며, 그 중 20 명 정도가 장교입니다. 예컨대, 제 아들 중 하나는 최근에 대령 임명에 지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유대인들 가운데 사업이나 다른 직종 가운데 성공하는 것에 있어 엄청난 도전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점차 돌파구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 인의 이야기로부터 (눅 10) "마지막 때의 교회"에 관한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전통적 사역자의 모형입니다. 그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방법에 답답하게 갇혀 있습니다. 얻어 맞고 강도 당한 사람은 세상에서 구원 받지 못하고 "상처 입은"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선한 사마리아 인은 일터 가운데 성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일상의 직무 가운데 불신자들과 접촉을 합니다. 다가가서 치유하고 돕기도 합니다. 전통적 사역자들에게는 "사역"을 하고 있다는 평을 못 받지만, 사역자들 이상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실제로 세상에 나아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회와 시장 가운데 퍼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5 중 사역 (엡 4:11-16) 에 속한 이들은 "코치"가 되어 공동체 내의 다른 이들을 "선수"로 봐야 합니다. 이 사역자들은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 (성도)들을 훈련하고 무장해서 예루살렘이나 예리고나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하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성도들은 일터에서 "선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기업과 정부에서 권세를 취하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확립하는 일입니다. 청렴과 탁월, 책임감의 원칙을 공동체 가운데 가르쳐 성도들이 세속적 세상 가운데 권세를 취하도록 해야 합니다.

예슈아의 주 되심은 기도와 믿음, 윤리적 기준,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 정부와 기업 가운데 전파 됩니다. 예슈아의 정부는 두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과 올 세상이지요. 이 세상에서 그분의 권세는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주어져 타락한 세상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가올 세상에서 그분의 영적 권세는 인간 사회의 통치 조직을 다스릴 것입니다.

오늘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의 영적 권세는 다가올 세상의 권세의 준비 정부(pre-government) 형태입니다. 리더십과 통치의 원칙을 공동체 내에서 가르쳐 다가올 세상의 정부와 기업을 관리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예슈아의 정부는 믿음의 공동체 밖의 인류 사회 전체를 다스릴 수 있게 되려면, 그 공동체 내에서 먼저 전개되어야 합니다.

이건 마치 대통령 후보의 선거 운동 참모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참모를 어떻게 다스리는가와 리더십의 원칙이 어떻게 펼쳐지는가가, 당선 이후 실제적 통치 권세가 될 것입니다. 그 참모는 선거 운동 담당에서 국회 의원으로 이직될 것입니다.

현재 기업과 정부에서 리더십을 담당하는 성도들은 다가올 예슈아의 정부의 선구자들입니다. 그들은 믿음의 공동체 내로부터 밖의 인류 사회에까지, 예슈아의 권세를 전하는 다리인 것입니다. 그들은 그분의 통치의 도구입니다. 그리고 왕께서 다스리시는 정부의 사절들입니다.

Shaul Byunghyun Go